

# 요엘서와 라오디게아적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제40호

Jeff Pippenger  
2026-02-03

## 사십이라는 수

베드로는 상징적으로 제삼시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고, 가이사랴 마리티마와 제구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마태와 마가에 따르면 옛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모산에 있었다. 누가는 팔일이라고 하며, 파니움과 그 산 사이의 기간을 가리킨다. 가이사랴 빌립보의 '음부의 문'에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도중에 변모산에서 한 번 멈춤이 있다. 파니움에서 일요일 법령까지 세 단계. 처음에는 가이사랴, 가운데에는 그 산, 끝에는 가이사랴. 처음에는 음부, 끝에는 죽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영광. 알파의 반역은 음부의 문으로 대표되고, 오메가의 반역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대표된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토대이다. 이는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반석을 가리키셨기 때문이다. 변모산은 둘째 단계로, 그곳은 성전이 완성되고 머릿돌이 놓이는 곳이다. 그 뒤에 십자가에서의 심판이라는 셋째 단계가 뒤따랐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자들도 있느니라. 옛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그들만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더라. 그의 옷이 광채가 나며 눈과 같이 심히 희어져, 세상에서 어떤 빨래하는 자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이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이 예수와 더불어 말하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게 하소서.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을 덮는 구름이 그 위로 드리워졌고, 그 구름 가운데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다. 그들이 문득 사방을 둘러보니, 예수 외에는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자기들끼리 간직하고, 서로 의논하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의문하였다. 마가복음 9:1-10.

그 산에서 베드로는 모세와 그리스도와 엘리야를 위하여 장막을 세울 것을 제의한다.

모세는 죽음을 겪었으나, 미가엘이 강림하여 그의 시신이 부패하기도 전에 그에게 생명을 주었다. 사탄은 그 시신이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며 붙들어 두려 하였으나, 미가엘은 모세를 부활시키고 그를 하늘로 데려갔다. 사탄은 자기에게서 먹잇감을 빼앗아 가도록 허락하신 것이 불의하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격렬히 비방하며

규탄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하나님의 종이 그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넘어졌을지라도 그의 대적을 꾸짖지 않으셨다. 그는 온유하게 그 일을 아버지께 맡기시며,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와 함께 서 있는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때까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변모 사건에서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곳에서 예수의 용모가 변하여 해와 같이 빛났고, 그의 옷은 희고 광채가 났다. 모세는 예수의 재림 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자들을 대표하여 거기에 있었다. 또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엘리야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불멸로 변화되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질 자들을 대표하였다. 제자들은 놀람과 두려움 속에서 예수의 지극히 영화로우신 위엄과 그들을 덮은 구름을 목도하였고, 두렵고 엄위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다. 초기문집, 164.

변모산은 세 장막을 가리킨다. 곧 고대 이스라엘의 시초에 있었던 모세의 장막, 그분의 성육신으로 표상되는 그리스도의 장막, 그리고 엘리야로 표상되는, 곧 십사만 사천인 장막이다. 십사만 사천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기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변모산은 인침이 십사만 사천에게 이루어지는 시점을 가리킨다.

십사만 사천인의 장막은 장막절의 반형에서 세워진다. 그 산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자들을 지목하고, 또한 그들이 그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것이 장막절의 반형임을 증거하는 세 증인을 제시한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모두 부활한 2023년에 세워지기 시작한 엘리야의 장막으로 일으켜 세워지고 있다. 먼저 기초가 놓였으니, 이는 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기초이며, 그 기초는 모퉁잇돌이요 기초석이신 그리스도이다. 그 다음 머릿돌이 없었는데, 이는 변모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십사만 사천의 인침을 상징한다. 변모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참으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자들을 대표한다. 베드로는 훗날 주께서 선하심을 맛본 자들이요 신령한 집이 된 자들이 곧 제사장 나라임을 기록하였다. 그들은 생명을 맛보았으므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너희가 주께서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사람들에게는 실로 버린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고 보배로우신 산 돌이신 그분께 나아오는 너희도 산 돌들로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직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또한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시온에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머릿돌을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전서 2:3-6.

"confounded"로 번역된 단어는 "부끄러워하다"를 의미한다. 남은 자들은 베드로로 대표되며, 그들의 기쁨은 늦은비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과 대조된다.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들"을 받았으므로, 십사만 사천의 한 열쇠는 시온에 놓인 "우두머리 모퉁잇돌"이다. 그 돌은 의인들의 눈에는 기이하나, 에브라임의 취한 자들에게는 걸림돌이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시편 118:22, 23.

예수께서는 포도원 비유의 결론에서 이 구절들에 관하여 언급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서 빼앗겨 그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어지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 버리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의 비유들을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그를 잡고자 하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겼음이라. 마태복음 21:42-46.

근본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부서지리니, 이는 반석이 그리스도이시며, 복음의 사역은 인간을 티끌로 낮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진토에 낮추시고, 인간을 위하여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보게 될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도록 준비된다. 그들이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시작할 때, 바라봄으로써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 중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에게 그의 참된 본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어, 그 자신 안에는 아무 가치가 없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원고 발표집 제20권, 117쪽.

기초석을 거부하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는데, 이는 포도원의 비유를 예수께서 적용하신 것이 성취됨에 따라 고대 이스라엘에게 그러하였던 바와 같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였고, 또한 모세를 거부하였다. 그들이 모세를 믿었다라면 그리스도도 믿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고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쳤다. 그리스도, 모세, 그리고 율법은 모두 기초를 상징하며, 사람이 놓을 수 있는 기초는 오직 그리스도뿐이지만, 기초로서의 그리스도는 많은 상징으로 표상된다. 모세와 율법은 모두 이 사실의 예증이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기초이지만, 이것은 다만 그의 예언적 말씀 안에 있는 다른 기초들이 그의 성품의 어떤 측면을 표상하는 상징들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이미 놓인 터,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를 아무도 놓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11.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서,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규범들은 곧 그분 자신을 나타낸다. 이 때문에 엘렌 G. 화잇은 십계명이 그리스도의 품성의 필사본이라고 기록한다. 그분은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이같이 표상될 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어떤 것의 시작과 함께 그 끝을 보여 주신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말씀으로서 그분은 또한 '진리'이시며, 진리는 예언적 틀이다. 그분이 자신의 말씀을 봉인하고 봉인을 푸실 때,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다. 그분은 또한 머릿돌이 되시는 모퉁잇돌이시다. 모퉁잇돌은 단지 그분을 기초로서, 혹은 히브리어 '진리'라는 단어의 첫 글자로서 보여 주는 표상에 지나지 않는다. 머릿돌은 성전의 정점이 되는 마무리 작업이며, 진리의 틀과 정합될 때 머릿돌은 모퉁잇돌보다 스물두 배 더 강력하다. 주께서 선하심을 맛본 자들의 눈에 놀라운 것은, 모퉁잇돌과 머릿돌에 정합된 진리의 틀의 원리들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예언적 열쇠들 가운데 하나를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는 점이다.

알파, 곧 첫 글자는 1이며, 오메가, 곧 마지막 글자는 22이다. 밀러의 보석들은 해처럼 빛났으나, 먼지술을 든 사람이 그 보석들을 모아 놓았을 때 그것들은 열 배 더 밝아졌다. 예언적 선의 끝이 예언적 선들의 시작과 동일하되 더욱 강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경이로움'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의 한 요소이며, 베드로에게 주어진, 십사만 사천을 매는 열쇠들 가운데 하나이다.

베드로가 말한 '신령한 집'은 윌리엄 밀러의 꿈에 나오는 보석함이며 또한 말라기가 말한 십일조와 헌물의 창고이다. 하늘의 창들이 열릴 때, 한 부류는 그 방에서 내쫓기고, 다른 부류는 그 보석함 안으로 던져 놓여져 하나님의 승리하는 교회의 흰 세마포 예복을 받는다.

유다 백성은 엄숙하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겠다고 서약하였다. 그러나 한동안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영향력이 거두어지자, 주를 떠난 이들이 많아졌다. 느헤미야는 바사로 돌아가 있었다. 그가 예루살렘을 비운 동안, 나라를 타락시키려는 악들이 스며들었다. 우상 숭배자들은 성읍에 발판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존재로 성전의 경내 자체가 더럽혀졌다. 통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지독한 원수인 암몬 사람 도비야와 대제사장 엘리아십 사이에 친교가 이루어졌다. 이 거룩하지 않은 결합의 결과로, 엘리아십은 도비야가 성전과 연결된 한 방을 차지하도록 허락하였는데, 이 방은 이전까지 백성의 십일조와 헌물을 저장하는 창고로 사용되던 곳이었다.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잔혹함과 배신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회중에서 영원히 제외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셨다. 신명기 23:3-6 참조. 이 말씀을 거스르며,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집 방에 보관된 예물들을 치워버리고, 그 배척된 민족의 대표자를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다. 하나님과 그의 진리의 원수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에 대한 경멸은 있을 수 없었다.

페르시아에서 돌아오자 느헤미야는 그 무엄한 모독을 알게 되었고, 침입자를 몰아내기 위해 즉각 조치를 취했다. '나는 심히 근심하였으므로,' 그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도비야의 모든 가재도구를 그 방 밖으로 던져 내보냈다. 그리고 내가 명하니 그들이 그 방들을 정결하게 하였고,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집의 그릇들과 소제와 유향을 가져왔다.'

성전이 더럽혀졌을 뿐 아니라, 헌물도 오용되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후의와 관대함이 위축되었다. 그들은 열심과 열의를 잃고, 십일조를 바치기를 주저하였다. 주의 집 창고들은 변변히 채워지지 않았으며, 성전 봉사에 종사하던 많은 노래하는 자들과 다른 이들은 충분한 부양을 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일을 떠나 다른 곳에서 생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는 일에 착수하였다. 그는 여호와의 전의 봉사를 떠났던 자들을 모아, '각기 제 처소에 세웠다.' 이것이 백성들에게 확신을 불러일으켰고,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져왔다. '충성스럽다고 인정된' 사람들이 '창고들을 맡은 출납관들'로 임명되었고, '그들의 직무는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것'이었다." 선지자와 왕들, 669, 670.

느헤미야가 도비야를 내쫓았을 때, 그는 바로 그 동일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성전 그 자체가 아니라, 십일조가 보관되던 성전 안의 바로 그 방이었다. 빌라델비아 사람 엘리아김이 라오디게아 사람 셉나를 대신하였을 때, 셉나는 먼 들판에 내던져진 재무관이었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이 재무관, 곧 궁내를 맡은 셉나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기 무엇을 가졌으며, 여기 누구를 두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다듬었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파며,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거처를 새기는 자 같이 하였느냐?' 하라. 보라, 주께서 강한 사로잡힘으로 너를 실어 가시며, 반드시 너를 단단히 싸시리라. 그가 반드시 너를 공처럼 격렬히 돌려 광활한 땅으로 내던지시리니, 거기서 네가 죽을 것이요, 거기서 네 영화의 병거들이 네 주군의 집의 수치가 되리라. 내가 너를 네 자리에서 몰아내리니, 그가 너를 네 지위에서 끌어내리리라.

그 날에 내가 내 종 힐기야의 아들 엘리아김을 부르리라. 내가 그를 네 겹옷으로 입히고, 네 허리띠로 그를 굳세게 하며, 네 정사를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의 거민과 유다의 집에 대하여 아버지가 되리라.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내가 그를 견고한 곳에 못같이 박으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영광스러운 보좌가 되리라.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 곧 자손과 후예와 모든 작은 그릇들, 잔에서부터 병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릇들이 그 위에 매달리리라.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견고한 곳에 박힌 그 못이 제거되며 찌혀 떨어지고, 그 위에 걸렸던 짐도 끊어지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이사야 22:15-22.

라오디게아의 어리석은 자 셉나가 쫓겨나는 그 날에, 엘리아김에게는 승리한 교회의 통치권이 주어진다.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보석들을 뒤덮고 있던 잡동사니로부터 십사만 사천의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그분께서는 셉나로 대표되는 자들을 "덮으시겠다"고 밝히신다. 하늘의 창들이 열리기 전에는 그 보석들이 잡동사니로 덮여 있었고, 그 잡동사니가 내던져질 때, 그 잡동사니는 수치로 덮인다. 윌리엄 밀러의 꿈은 십사만 사천의 인침을 가리키고 있다.

그 궤는 말라기의 창고이며, 베드로의 신령한 집이며, 베드로가 세우고자 하였던 엘리야의 장막이다. 먼지술을 든 사람은 보석들을 궤 안에 던져 넣을 때 십사만 사천인의 인침을 예증한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참으로 그분께로 돌아왔음을 입증하는 시험을 지적한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매,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 앞에 기념책이 기록되었더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모으는 그날에 그들은 내 것이 되리니, 사람이 자신을 섬기는 자기 아들을 아끼듯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말라기 3:16-18.

이 본문에서 "돌아오다"는 핵심어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며, 동시에 그들에게 십일조와 헌물을 반환함으로써 그분을 시험하여 보라고

하신다. 또한 의인들이 “돌아올” 때가 있으며, 그리함으로써 그들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분별”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깊이 생각하던 자들은 십사만 사천의 기치가 될 자들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은 첫 번째 시험이므로, 16절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그때에'는 예언적 서사의 앞선 맥락을 지시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말이 나를 대적하여 거세도다.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이르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며, 우리가 그의 규례를 지키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애통하게 행한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였느니라. 이제 우리는 교만한 자를 복되다 칭하고, 참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높임을 받으며, 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도리어 건짐을 받느니라. 말라기 3:13-15.

말라기는 말한다. "이제 우리는 교만한 자를 복되다 한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은 "교만의 면류관"이라 불리며, 그들을 괴롭게 하던 두 선지자인 모세와 엘리야가 죽었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기뻐한다. 그들은 너무 기뻐 서로에게 예물을 보냈다.

그들의 시체가 영적으로는 소돔과 애굽이라 불리며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큰 성의 거리에 놓여 있으리라. 백성과 족속과 언어와 나라들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시체를 삼 일 반 동안 보고, 그들의 시체를 무덤에 두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또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예물을 주고받으리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음이라. 요한계시록 11:8-10.

2020년 7월 18일부터 2023년에 이르기까지 교만한 자들은 복되다 여김을 받았다. 2020년 7월 18일에 그 메시지는 '주'를 거슬러 '완약'하였다. 2020년 7월 18일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거슬러 우리가 얼마나 참람하게 말하였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실망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그의 규례를 지키며 만군의 주 앞에서 애통히 행한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탄식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지체의 때로 들어갔다. 이는 예레미야가 첫 번째 실망을 묘사할 때의 탄식과 병행한다.

나는 조롱하는 자들의 모임에 앉지 아니하였고 즐거워하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손으로 인하여 내가 홀로 앉았나니, 주께서 나를 분노로 가득 채우셨음이니이다. 어찌하여 나의 고통이 끊이지 아니하며, 나의 상처가 치료되기를 거절하여 불치가 되었나이까? 주께서 정녕 내게 거짓말하는 자 같으시며, 마르는 물과 같이 되시겠나이까? 예레미야 15:17, 18.

우리는 2020년 7월 18일의 예언을 두고 완악한 말을 하였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심히 반역하였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그 실망 가운데 지체의 때가 진행되고 있었고, 한 무리는 애통하였고 다른 무리는 기뻐하였다. 그러한 맥락에서 말라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매,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 앞에 기념책이 기록되었더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모으는 그 날에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아들을 아끼듯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라. 말라기 3:16-18.

2024년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표상된 근본적 시험이 도래하였다. 그 시험에서 두 부류가 드러났고, 그 두 부류를 구성한 무리는 사흘 반 내내 정기적인 줌(Zoom) 회의에서 서로 빈번히 대화하였다. 주께서 그들의 논의를 들으셨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류는 그의 이름을 깊이 생각하였다. 곧 팔모니, 유다 지파의 사자, 알파와 오메가, 진리, 말씀, 기묘한 언어학자, 모퉁잇돌과 머릿돌, 어린 양, 하늘의 대제사장, 성전, 반석. 그 책에 기록된 자들은 영광의 왕국의 기치를 나타내는 왕관 위의 보석들이 될 것이다. 그가 그 보석들을 갖추실 때, 그들은 돌아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한다. 그가 그 보석들을 보석함에 던져 넣으실 때, 그때에 누가 미련한 자이며 누가 지혜로운 자인지가 분별된다.

말라기서는 기록한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이까?' 하였느니라.

너희는 모든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리고 이제 이 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창들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쏟아 부어, 너희가 그것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지 아니하는지.

창고는 곧 보석함이며, 십일조는 슬기로운 처녀들이다. 창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새로운 틀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 보석함에 담기는 보석들은 한밤중 소리의 기별과 관련된 진리들이다. 십일조는 느헤미야의 정결에서 밝혀지듯 성전의 특정한 방에 보관되었다. 보석함과 창고, 곧 베드로가 말한 신령한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며, 보석들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신성과 연합한 인간 성전들을 가리킨다. 인간 기별자들은 신적 기별과 분리될 수 없다. 그 보석들은 하나님의 기별자들인 동시에, 그들이 선포하는 기별 그 자체이기도 하다. 영감은 종종 기별과 기별자를 결합된 하나로 동일시한다.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당신의 교회를 부르셔서 이 땅에서 빛으로 서게 하셨다. 진리의 강한 큰 도끼, 곧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로 그분은 그들을 교회들과 세상으로부터 분리해 내어, 그분 자신과 거룩한 친밀함 속으로 이끌어 들이셨다. 그분은 그들을 그분의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시고, 이 시대를 위한 예언의 위대한 진리들을 그들에게 맡기셨다. 고대 이스라엘에게 맡겨졌던 거룩한 신탁과 같이, 이것들은 세상에 전해야 할 거룩한 위탁이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는 하나님의 기별의 빛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대리자로 나아가 온 세상 방방곡곡에 경고를 전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신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를 받아들이는 모든 영혼에게 갈보리의 십자가는 이렇게 말한다. "영혼의 가치를 보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무것도 이 일을 방해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며, 그 영향은 영원에까지 미쳐야 한다. 사람들의 영혼을 구속하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예수께서 나타내신 사랑이 그분의 모든 제자들을 움직이게 할 것이다. 증언, 5권, 455쪽.

다음 글에서 이러한 개념들을 종합하기 시작하겠다.

내 생애의 지난 오십 년 동안 나는 경험을 쌓을 귀중한 기회들을 받아 왔다. 나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에 있어서 경험을 쌓아 왔다. 그 천사들은 하늘 가운데를 날아다니며 온 세상에 경고의 기별을 선포하고, 이 땅 역사의 마지막 날들에 사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아무도 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이는 그들이 천상 우주와 조화를 이루어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조명되고 진리로 성화된 남녀들이 그 세 기별을 그 순서대로 선포한다.

나는 이 엄숙한 사업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나의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험이 이에 긴밀히 얽혀 있다. 이제 살아 있는 자들 가운데에도 나와 유사한 경험을 가진 이들이 있다. 그들은 이 때를 위하여 전개되는 진리를 인식하여 왔으며, 위대한 지도자, 곧 주의 군대의 대장과 보조를 맞추어 왔다.

그 기별들을 선포함에 있어 예언의 모든 세부가 성취되었다. 이 기별들을 선포하는 일에 역할을 하도록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은 자기들에게 지극히 귀중한 경험을 얻었으며,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날들의 위험 한가운데 있고 사방에서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릴 때, 동시에 많은 이들의 부담은 우리를 여러 교회들과 세상으로부터 이끌어내어 세상에서 특별한 백성으로 서게 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흔들어 놓는 데 있으며, 요한과 같이 우리의 증언이 전해질 것이다:

'태초부터 있던 바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살펴본 바요, 또 우리 손으로 만져 본 바, 곧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라; ...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가지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내가 본 바와 들은 바와, 내 손으로 만져 본 바를 증언한다. 그리고 이 증언이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온 것임을 나는 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이 진리의 선포에 수반되어, 문필과 음성으로 경고가 주어지고 메시지들이 그 순서대로 주어졌음을 보았으며, 이에 대하여 증언한다. 이 일을 부인하는 것은 곧 성령을 부인하는 것이며, 미혹하는 영들에게 귀를 기울여 믿음에서 떠난 자들의 무리에 우리를 속하게 하는 것이다.

원수는, 우리를 영원한 진리의 높은 터전 위에 세워 주었고 그 사업을 확립하여 그 성격을 부여해 온 과거의 기별들 속에 있는 우리 신앙의 기둥들에 대한 신자들의 확신을 뿌리째 뽑아 버리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기원한 진리를 그들에게 펼쳐 보이시며 그의 백성을 이끌어 내셨다. 그의 음성이 들려 왔고 지금도 들려오니, "힘에서 힘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하라"고 하신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수호자이시므로, 그 사업은 강화되고 확장되고 있다.

진리를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손끝으로만 붙잡고 있으면서, 그 원칙들을 영혼의 지성소로 들여오지 않고 생명적인 진리를 바깥뜰에만 머물게 한 자들은, 그들을 오늘의 그들로 만들고 세상에서 간절하고 결연한 선교적 일꾼들로 세워 온 이 백성의 과거 역사에서 아무런 거룩함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는 귀중하다. 그러나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넘어져 그 마음이 깨어지는 체험을 하지 않은 자들은 무엇이 진리인지 보지도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 견해를 만족시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미 놓인 터 외에 다른 터를 세우려 들 것이다. 그들은 자기의 허영과 자존심을 치켜세우며, 우리 신앙의 기둥들을 제거하고 그것들을 자신들이 고안한 기둥들로 대체할 수 있다고 여길 것이다.

이는 시간이 지속되는 한 그러할 것이다. 성경을 가까이하여 깊이 연구해 온 사람이라면,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들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엄숙한 입장을 보고 깨달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느끼고,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산 연합을 갖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형성되기까지 그들은 감히 쉬지 않을 것이다. 자아는 죽고, 교만은 영혼에서 쫓겨나며, 그들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유순함을 지니게 될 것이다. Notebook Leaflets, 60, 61.